

한국청년방일단(제 6 단) 초빙사업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일본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 (JENESYS2023)’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등을 초빙하여 강의청강, 학교방문, 테마에 따른 각종 시찰 등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향후 한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학습) 한국 고등학생 등 30 명
초빙 프로그램 한국 고등학생 등 30 명

【방문지】 사전 프로그램 도쿄도 30 명
초빙 프로그램 도쿄도,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 30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2 월 5 일 (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참가자들에 의한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 :

2 월 13 일 (화) 하네다국제공항 도착, 도착시 오리엔테이션

【시찰】 이수현 씨 현장비를 포함한 신오쿠보(新大久保) 필드워크

2 월 14 일 (수) 【강의청강】 외무성 ‘새로운 일한관계’, 가고시마현으로 이동

2 월 15 일 (목) 【예방·강의청강】 가고시마현청 ‘국제교류원이 본 가고시마현의 매력’

【학교방문·교류】 학교법인 하라다가쿠엔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시찰】 가고시마 환경미래관

2 월 16 일 (금) 【시찰】 매립처분장, 오사키 유기공장, 소오 리사이클센터

【강의청강】 ‘오사키초 SDGs 추진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2 월 17 일 (토) 【시찰·강의청강】 심수관요, 홈스테이 대면식

2 월 18 일 (일) 종일 홈스테이

2 월 19 일 (월) 홈스테이 해산식, 구마모토현으로 이동

【예방·강의청강】 구마모토현청 ‘구마모토현의 매력에 대하여’

【강의청강】 구마모토성 피해영상 감상 및 피해체험 강의

【시찰】 구마모토성의 최신 복구상황 및 지진대책 소개

2 월 20 일 (화) 【시찰】 구마모토지진피해유지엄 KIOKU, 2016 년 구마모토지진의

지진피해흔적(구 도카이대학 아소캠퍼스, 스가루쿠즈레노히 전망소)

【교류】2016 년 구마모토지진피해지역의 유지단체 ‘스가루노 사토’ 멤버와의 의견교환회, 후쿠오카현으로 이동, 성과보고회 (방일성과·귀국후의 활동계획 발표)

2 월 21 일 (수) 후쿠오카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4년 2월 13일 【시찰】 이수현 씨 현장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2024년 2월 14일 【강의청강】 외무성 ‘새로운 일한관계’
	
2024년 2월 15일 【학교방문·교류】 학교법인 하라다가쿠엔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2024년 2월 16일 【시찰】 오사키 유기공장
	
2024년 2월 17일 【시찰·강의청강】 심수관요	2024년 2월 19일 홈스테이 해산식
	
2024년 2월 19일 【예방·강의청강】 구마모토현청 ‘구마모토현의 매력에 대하여’	2024년 2월 20일 【시찰】 구마모토지진피해유지엄 KIOKU

3. 참가자의 소감 (발체)

◆ 한국 고등학생

오사키초에서의 시찰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사키초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분별하여 활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평상시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인간에 의해 초래되는 자연 등의 피해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배출하고 활용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은 환경에 대한 고찰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보다 나은 지구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일본 고등학생과의 교류가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는 국가간의 정치적 문제와 역사적 문제를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배웁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서로 상대국의 동세대를 만날 때 선입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 인식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한국 고등학생

홈스테이를 통해 호스트패밀리와 교류하면서 일본인의 친절한 마음을 접하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 한국 인솔교원

구마모토헌내 일정에서는 지진으로부터의 부흥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찰처의 설명과 의견교환회를 통해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습니다.

4. 일본측의 소감 (발체)

◆ 가고시마현청

가고시마현은 한국의 전북특별자치도(구 전라북도)와 1989 년부터 약 30 년에 걸쳐 행정간 교류와 청소년 교류, 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역사적·문화적으로 한국과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현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섬들과 유서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명소유적, 양질의 풍부한 온천 등 매력이 많습니다. 호스트 패밀리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고시마 현민의 따뜻한 인정을 접하고 가고시마의 매력을 충분히 느낌으로써, 가고시마의 팬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다시 가고시마를 방문해 주십시오.

◆ 구마모토헌청

구마모토헌의 매력(자연, 'ONE PIECE 구마모토후흥프로젝트', 구마몬 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방일단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구마몬도 등장하여 방일단 여러분과 교류함과 동시에 현청 앞에 있는 루피상도 견학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구마모토 나아가서는 일본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 학교법인 하라다가쿠엔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학생들도 교원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여러분이 일본에 대해, 가고시마에 대해,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에 대해 알게 되고,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심화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일반사단법인 오사키초 SDGs 추진협의회

오사키초의 재활용 활동상황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재활용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깨닫지 못했을 뿐, 한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국의 활동에 대해서도 깊이 배우고 싶다’고 감상을 전해주신 분도 계셔서 저희들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고시마시 그린투어리즘추진협회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의 학생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에 대해 스터디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올까’ 하며 약간 불안을 느끼면서 당일을 맞이했습니다만, 참가하신 분들이 대단히 일본어가 능숙하여 대화에 대한 걱정 등은 모두 기우로 끝났습니다. 시작 전에는 ‘외국인은 어렵지 않을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던 멤버들이, 끝나고 나서는 “내년에도 또 오면 좋겠다”, “2박 3일로는 너무나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완전히 방일단 일행의 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양국이지만, 이번에 방일하신 학생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상호이해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췌), 보도기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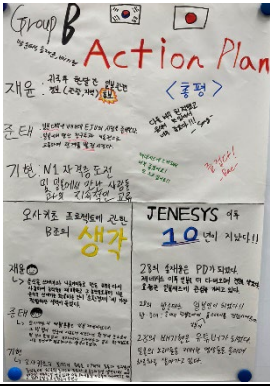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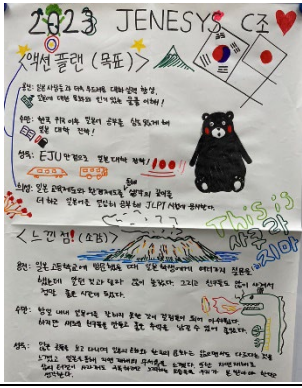
 이후 카고시마 정보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점심을 먹고, 학교를 투어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 친구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깊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하여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던 것 같아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카고시마 정보 고등학교과 교류 후 환경 미래관에 방문하여 SDG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이 인간으로 인해 동물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미래에 지구의 co2 농도가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후 “나 하나만이라도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2024 년 2 월 15 일 (Instagram)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학생식당 등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2024 년 2 월 15 일 (Instagram) 가고시마 환경미래관을 방문하여 놀란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

을 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깊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던 것 같아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고 또한 지구의 이산화탄소농도가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SDG를 주제로 한 우리 여행의 하이라이트 재활용품 처리장 방문이었다. 처음에는 “음? 재활용품장에 간다고?”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방문을 하고 강의를 들은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비료로 만들어 저렴한 값에 판매를 하고 있어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사진의 장소는 2014년 4월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났던 2번의 진도 7의 지진으로 인해 끊어진 아소지방의 아소대교입니다. 그로 인해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지진에서 벗어날 수 없을테니 하루라도 빨리 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2월 16일 (Instagram) 재활용 관련시설을 시찰한다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재활용품 처리장에 간다고?’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방문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사키초를 찾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비료로 만들어 저렴한 값에 판매하고 있어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Instagram) 사진의 장소는 2016년 4월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났던 두 차례의 진도 7의 지진으로 인해 끊어진 아소지방의 아소대교입니다. 그로 인해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도 지진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 하루라도 빨리 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가고시마 요미우리 TV) ‘일본에서의 유학·취직을 원하는 한국의 고등학생이 가고시마의 고등학생과 교류’ 가고시마정보고등학교 방문 및 동교 학생과의 교류	2024년 2월 19일 (미나미큐슈신문) ‘한국 고등학생이 일본 이해촉진 교류를 위해 오사키초에서 SDGs를 배우다’ 매립처분장과 유기공장 등의 시찰, 관련강의의 청강을 통해

에 대해 언급하며 수업체험과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일본과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재활용되어 순환하는 'circular village (체험형숙박시설)'이라는 설명을 들은 내용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	--

6. 보고회에서 방일성과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도쿄도,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

	
【방일 중의 배움】 - 일본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 일본에서 먹은 일식이 맛있었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 - 오사키초 시찰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와 나무부스러기로 만든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 농작물로부터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재이용하는 순환경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 오사키초의 재활용률은 일본제일로, 그 방법이 전국에 적용되게 되면 환경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옵니다. 한국에서도 오사키초와 같은 환경보호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오사키초의 쓰레기는 20 종류 이상으로 분별되어 있는데, 한국의 8 종류와 비교하면 매우 세세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오사키초 주민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액션 플랜】 - 귀국후 한달 동안 관광과 지역 소개 등 일본관련 정보를 발신하여 홍보하겠습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1 급에 도전하겠습니다.	【방일 중의 배움】 - 일본에서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그때까지 쌓여 온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사람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각처의 시찰과 교류를 통해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일 중의 발표】 오사키초에서의 시찰을 통해 쓰레기의 활용방법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액션 플랜】 - 일본의 교육제도와 환경에 관한 정책에 대해 조사하여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싶습니다. -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겠습니다. - 일본유학시험(EJU)에서 만점을 받아서 일본 대학에 진학하겠습니다. - 일본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일본어 실력을 늘리겠습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